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동사례

조원희 상주 귀농귀촌 정보센터장

상주 일반현황

- 인구 10만5천명의 전형적인 농업도시
- 주요 생산품목: 쌀, 곶감, 사과, 배, 포도, 한우, 육계, 양봉, 오미자, 오이, 수박 등
-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
- 최근 중부내륙 고속도로,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의 개통등으로 교통여건 좋아짐
- 최근 10년간 657가구 1,876명 귀농귀촌

상주시청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운영

- 전국 귀농 1번지 상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2. 4. 9 일 발족
- 목 표 : 귀농·귀촌 3,000호 육성
- 인 원 : 10명(팀장 김상태 외 9명)
- 분 야 : 총괄기획, 유치홍보, 기반조성
- 귀농·귀촌 관련 ONE-STOP 서비스 제공
- 365일 상담실 운영
- 귀농·귀촌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
- 귀농·귀촌 멘토링제 운영
- 귀농인 빈집 및 농지 D/B 제공
- 귀농·귀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

귀농·귀촌 서울사무소 운영

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

▶개요
- 2009년 6월 24일 개소, 외서면 봉강리 상주환경농업학교 내에 위치
- 귀농 상담, 빈집 소개, 빈집 조사 및향토자원 조사 활동
-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추진

▶귀농인 교육 활동
- 공동체 귀농학교 (예비 귀농귀촌인 대상)
- 귀농 새내기, 여성귀농인, 마을리더 양성 교육
- 집고치기 학교 운영
- 현장견학 및 워크샵 및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

▶귀농 귀촌인 네트워크 구축활동
- 귀농인 사랑방 운영
- 귀농 귀촌소식지 발간
- 귀농 귀촌동아리 운영 및 문화활동 계획

▶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 및 농촌형 사회적기업 설립 계획

사례1. 토리식품

-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꿈꾸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회사
- 2002년 경기도 일산에서 창업하여 2005년 8월 고향인 공검면 동막리로 이전
- 호박죽, 카레, 케첩,각종 소스류, 단옥수수 병조림, 우리밀제품, 토마토식초등을 생산하여 한살림, 아이쿱생협, 두레생협, 여성민우회 생협 등으로 납품
- 원재료가 되는 호박, 옥수수, 토마토, 팥,우리밀 등을 지역 작목반 및 농가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(년간 500톤 정도)
-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전부 지역주민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, 여름철 가공량이 많을 경우 20-30여명 정도의 임시직 고용

사례1.토리식품

- 지역공동체문화 복원을 위해 인형극단'공갈못'을 조직하고 창작인형극'상주함창 공갈못에' 공연
- 주부 15명으로 구성된 '공갈못 연밥노래 연구회' 창단 및 발표회
- 2008년 8월 공갈못 연꽃 문화제 개최
- 창작인형극2탄 '연밥따는 저 처자야' 제작
- 공갈못 주변의 흩어진 이야기들을 모아 '이야기 문화지도' 편찬 프로젝트 진행
- 2011년 8월 재단법인 공갈못 문화재단을 설립

-토리식품 매출의 1% 기부
-상주의 동학혁명 발자취등 다양한 문화컨텐츠 조사 연구 활동
-개인이나 단체의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
-상주 내의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들을 묶어 네트워크 구축
-인문 교양강좌 개설

사례2.상주녹동마을

- 이안면 문창리에 위치
- 2010년 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하였으며 30가구 입주함(농업6, 공무원8, 기업인3, 자영업 13)
- 2,875백만원의 자금 투입
- 귀촌인들과 기존 농민들이 함께 입주하여 마을 구성
-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아 주민들에게 밀착된 영농기술을 지도함
- 홍로요를 운영하는 도예가 신경애
- 백련, 산양삼 공동재배, 점심 공동급식 실시 등 주민 공동사업 추진

사례2.상주녹동마을

사례3. 상주승곡마을

-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
- 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 ,114호 272명,농지 157ha
- 주요 생산품목: 쌀, 한우, 배, 곶감, 사과
- 귀농귀촌 5가구
-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(농림부)
- 2006년 팜스테이마을 지정(농협중앙회)
- 2009년 환경부, 대구지방환경청 자매결연
- 2010년 우수체험공간 지정 (농식품부)
- 2010년 농어촌체험, 휴양마을 지정 (상주시)
- 2011년 농촌여성 일자리창출사업장 지정 (여성가족부)
- 도농교류, 농촌체험, 꾸러미사업, 농민장터 등을 진행하며, 유기농업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지향

사례3. 상주승곡마을

▶ 승곡마을 꾸러미사업

-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가 전업농보다 효율적이며 농가에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
- 소농들의 협업 생산⇨민주적 의사결정구조, 저투입, 저비용 농사 가능
- 윤작, 간작, 혼작, 전작에 기반한 생태적 유기농업가능
- 제철농사와 전통 먹을거리 복원
- 품목구성 : 제철에 나오는 채소류, 산나물, 과일류, 유정란 등
- 농가형 가공 활성화 : 장류, 효소, 떡, 우리밀 빵, 두부, 콩나물, 참기름, 들기름 등
- 경축순환의 실천 : 유정란 생산, 한우 사육 등

사례3. 상주 승곡마을

▶ 승곡마을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

- 조용권: 오작당 차종손, 문화유산 해설사, 상주귀농귀촌 위원회 위원, 풍양조씨연수원 교무, 고택을 활용한 체험과 민박 사업 진행
- 이인석, 차영미: 초대 체험마을 사무장, 마을요가교실 강사, 유기농업
- 정경수, 송혜경, 정다빈, 정예빈 : 현재 체험마을 사무장,산촌유학, 쇼핑몰, 각종 체험, 마을 아이들의 친구
- 이석민, 서정희: 마을청년회 총무, 마을 주치의(침, 뜸), 마을 풍물패 상쇠, 유기농업
- 이숙희 : 체험마을 간사, 꾸러미 사업 실무 및 떡과 반찬가공 담당, 떡만들기 체험 담당

사례3. 상주 승곡마을

사례3. 상주 승곡마을

사례4. 외서면 작은 도서관

사례5. 여성농민 목요장터

- 상주시여성농민회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상주문화회관 앞에서 진행
- 지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하여 반찬류, 두부와 참기름들 가공품, 장류, 각종 효소등을 판매
- 2012년4월부터 로컬푸드운동의 일환으로시작
- 장터의 실무책임을 두명의 여성귀농인이 담당
- 아나바다 장터, 수공예품, 문화예술공연등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

사례6.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운동

- 2004년 농촌지역 공동화로 폐교위기에 놓인 상주 남부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,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시작함
-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주시내와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고, 교내에서 체험학습과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좋은 학교로 거듭남
- 학생수가 23명에서 107명으로 증가
- 2008년 중학교 과정(내서중학교)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시작 (학생수 16명에서 48명으로 확대)
- 2009년 백원초등학교로 확대 (학생수 18명에서 70명)
- 대안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농촌상황에 맞게 특화함으로서 외지에서 상주로 귀농,귀촌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

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안

- 단순한 인구늘이기 차원의 정책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필요 (소득, 일자리, 교육, 문화, 복지, 삶의 질 등)
- 농촌일자리와 연계한 정주공간 개발
  - 20가구 이상의 전원마을이나 대규모로 진행되는 농어촌 뉴타운도 좋지만 오히려 농촌형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등과 연계한 소규모 정주공간(5가구 내외) 개발이 필요함
  - 지역별로 주제를 가진 문화컨텐츠와 연계한 정주공간 개발
  - 토지분양상의 혜택이나 소득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보다는 시스템과 교육, 기반 시설 마련에 투자

감사합니다.